

# 전주에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024년까지 조성

효성 등 110개 탄소기업 집적화  
4600억원 투입 24개 사업도 추진  
고용 5500명, 매출 7500억 달성

전주시 팔복·조촌동 일대에 오는 2024년까지 탄소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2024년까지 탄소 관련 기업 110개를 유치해 집적화하고 전주에 '탄소산업의 메카인 C-Novation Park'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사업비 4600억원을 투입해 24개 사업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원, 수출액 1400억원을 일군다는 목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전북 탄소 특화단지를 포함해 전국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 의결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탄소 특화단지 대상지는 전주의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업단지다.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는 효성, 비나텍과 같은 탄소 관련 기업 30여개 사가 입주해 있는 데다 현재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업단에도 57개 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어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나 창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두 산업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과 같은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탄소 관련 기업들의 지원과 집적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익산의 건설·기계·뿌리기업, 군산·완주의 자동차 기업, 새만금의 에너지 기업과 연계해 전북 지역 산업 전체의 동반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의결을 위해 도 정치권,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과 공조체계를 구축,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효성을 비롯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캡티브하이테크 등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수요 파악,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총괄 계획서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국가 차원에서 도에서는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국내산 탄소섬유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송하진(가운데) 전북지사가 지난 26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수요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품, 완제품 기업과의 R&D 사업 추진, 탄소펀드 조성을 통한 탄소 관련 기업 경영지원, 미래기술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등 전후방기업

과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이 특화된 탄소산업 생태계가 친환경 계기를 맞은 만큼 효성을 비롯한 탄소산업 기업과 협력해 전북과 전주를 탄소산업 메

카로 만들겠다"며 "친환경 자동차·수소·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익산 산들강양포 농촌체험마을, 전북 유일 '으뜸촌' 선정

체험·교육·숙박·음식 평가 1등급  
농림부 관광사업 4년 연속 뽑혀

익산 산들강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4년 연속 으뜸촌으로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시는 옹포면 산들강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체험·교육·숙박·음식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관광사업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74개 마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심사를 실시했으며 체험·교육·음식·숙박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해 등급을 결정했다.

산들강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이번 평가 뿐 아니라 지난 2019년에는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에서 시설과 운영관리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으뜸촌의 저력을 인정받았다.

산들강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금강하구둑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로 산, 들, 강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농촌의 포근함을 안겨주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을 방문하면 옹포 특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한 호떡·인절미·백설기와 마을에서 직접 채취한 썩



익산 옹포면 산들강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경.

과 쌀가루를 이용한 썩개떡·썩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연인 등 소규모로 체험을 원하는 체험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들강양포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블루베리케이크·떡만들기, 농산물 수확 체험 등 소규모 단위의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들강 양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전주·익산·군산·완주, 아파트 투기 억제 공조

특별조사 실무협의회... "풍선효과 차단"

'아파트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주시가 투기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과 손을 맞잡았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찰, 세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은행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 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불법중여 등 탈세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또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불법 거래 의심 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 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시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 공조 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군산시, 무주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690만원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군산시는 올해 2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 또는 군산시(희망루아파트)에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신규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대상 가구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중 최대 69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택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